



■ 유 태 전 영등포병원 이사장(전 대한병원협회장)

“의료인으로서 최고의 훈장을 받고 보니 그야말로 감개가 무량함을 금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제 삶의 기간 동안 더욱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당시 병원협회 임원진과 사무국직원들, 그리고 전국의 회원병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런 영광이 있게 해 준 주위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영광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봉사하고 희생하는, 의료인 본연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앞으로의 제 삶을 보다 알차고 진실되게 꾸며 나갈 것입니다”

4월6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유태전 영등포병원 이사장은 이번 훈장 서훈에 따른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먼저 주위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이번 유 이사장이 서훈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으로서, 그동안 명예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에게 이르기까지 삼대가 직업에 몸담아 온 의사가족이지요, 할아버지는 가훈을 ‘봉사와 감

사’로 정해 후손들을 훈도하셨지요. 할아버지의 이런 훈도는 지금까지도 저와 저의 형제들의 삶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연세의전을 졸업하시어 평생을 의사로서 살아오신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전북 고창에 보건소를 창설하시어, 당시로선 대단한 명예이기도 했던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셨지요. 이제 제 대에 와서 의료인으로서 최고의 훈장을 받고 보니 그야말로 저희 집안의 영예를 잇는 것 같아 감개가 무량함을 금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제 삶의 기간 동안 더욱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천명으로 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977년 영등포성모병원(현 영등포병원)을 개원했고, 1985년 이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김포 월곶면과 통진면에 연 2회에 걸쳐 무료봉사 활동을 벌여왔다. 그런가하면 이 기간 동안 영등포의사회장과 한국 의정회 부회장을 거쳐 대한병원협회 여러 상임이사를 역임하며 회원병원들의 권익옹호에 앞장섰고, 대한중소병원협의회 회장과 함께 한국병원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사장을 맡아 중소병원들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같은 의료계 활동 뿐 아니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역총재를 맡아 국가적 위기상황이었던 IMF 당시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보전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전개했다.

지난 2004년 대한병원협회장에 당선된 이후

에는 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병원계를 대표하고, 각종 의료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병원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 사업국을 신설해 협회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의료기관평가사무국을 신설, 의료기관평가를 할 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회 주도의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신임평가센터를 설립하는 등 사무국을 혁신했다.

그런가하면 보건의로 산별교섭에 대비해 사무국 내에 노사협력본부를 신설, 병원들의 산별교섭 현황 파악과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노사협력 강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전공의 수련업무와 관련해서 비인기과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조금 지원과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 수련교육센터 신설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대표와의 협약체결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B2B 시스템을 통해 의료물품 구매요청부터 발주·견적·입찰·계약에 이르는 구매절차 전 과정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처리해 주는 B2B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병원들의 복잡한 구매조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병원의 물품구매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는 저가양질의 물품 구매 등의 사업을 벌여 효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전자거래에 필요한 표준화 자료 및 전자거



래 개발 솔루션과 다양한 구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업무 및 물품 재고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했다.

지난 2005년 말에는 병원협회 중심의 의료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수가협상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수가조정 합의를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두었고, 양 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상대가치연구단을 결성키로 하는 등의 업적을 이루었다.

“당시 조정된 수가가 3.5%로 우리 병원계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수준을 훨씬 상회한 선에서 정부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요. 무엇보다도 의료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MRI·PET-CT 등을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시키고, 환자식대와 입원료 조정을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일 때 병원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적극 반영시킨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의료법 개정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시행을 위해 노력한 일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안들이었고, 이를 위해 협조해 주신 당시 병원협회 임원진과 전국의 회원병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시아지역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발생하여 희생자가 속출했을 때는 그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 피해지역에 급파해 긴급구호활동을 펼쳤으며, 각종 성금을 조성하고 민관합동의료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랑의 인술을 베푸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등 세계적

인 재앙이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회원병원들과 함께 정부에 적극 협력하는 등 숭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 2005년 북한적십자측의 서울방문을 계기로 평양적십자병원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국 1,200여곳의 회원병원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북한지원 의료장비를 모아 이를 북한에 전달하는 등 각종 의약품 및 의료기기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 대북 지원사업의 창구역할을 수행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의료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외에도 제35차 국제병원연맹(IHF) 총회 서울 개최를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단체들과 공동으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자율정화를 선언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대담 김성환) **KHA**